안녕하세요? 직장인의 경력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진행의 강은하입니다. 경력관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대성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진로를 정할 때 목표를 정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하는 직장인이 돼도
여전히 미래를 위해서 경력을 관리해야 하는데

사실 업무 스트레스가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여기에 경력관리까지 해라. 이렇게 되면 직장인인

저희한테는 조금 가혹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경력관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바라는 바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직장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건강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면서 직장인의 경력관리나 또 성과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서

미래를 밝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과 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신경 쓴다고 해도 또 해결이 되지 않죠. 또 술을 먹는다고

담배를 피운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하든 아니면

상황이 변하든 또 마음을 먹든 간에 조금씩 무언가
움직여야 해결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일을 할 때 경력관리를 위해서 또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평소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오늘은 이런 거를 통해서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3직인데요.

바로 직무, 직급, 직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관리가 술술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해주실까요?

성과를 폭넓게 이해하려면 3가지 지식이 필요한데요.
바로 3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직무, 직급, 직책을 말하는 것인데요.
모든 일은 이 3가지를 고려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직무란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신 부분이죠. 직무는 담당하는 일이죠.

직무가 총무라면 총무와 연관된 일을 하는 것이죠. 출근해서
총무 업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job description, 직무

수행 범위를 참고하면 되는 것이죠. 자, 직책은 등급을 말하는
것이죠. 등급에 따라서 직무의 난이도가 더해지는 것이죠.

직장인의 서열 직급이 있잖아요. 대리보다는 차장의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직책은 직무상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사고 즉 thinking, 실행에 대한 의무에서부터 법적인
범위까지 그 책임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내의 직책이 있는 분은 부서 내 CEO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직책은 사장의 역할을 하는 작은 단위에서 살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백 필의 말을 모는 마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모두가 더욱더 무거운 직책을 염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직장에서 직무, 직급, 직책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경력관리를 차곡차곡 해나간다는 것이 기반이

되는 것이죠. 직무 관리의 핵심은 조직이 정해진 직무 수행
범위 외의, 제가 외의라고 했습니다. 고객과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급 관리의 핵심은 뭐냐? 정해진

직급의 업무 수행보다는 그 직급의 상하 직급의 나머지
공간을 메워야 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또 직책 관리의

핵심은 뭐냐? 이거는 부서 내의 CEO로서 인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사내외의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사원과 상위 직책의 공간을 모두 메우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직무를 관리하기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 직무에 대한 수행은 어떻게 보면
직장이나 고객, 사회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직장에는 도움이
되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거는 대형사고

아니겠습니까? 터져도 크게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평사원이 저지르는 사고의 책임은 100% 회사에 있다는

것이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직급
관리인데요. 직급은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업무의 난이도이죠.

이거는 해당 직장에 따라서 조금 상황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나보다 낮은 직급과 나보다 높은

직급의 공간을 모두 메우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급은 조직이 정해주는 것보다 다른 직급이 하지

못하고 즉 보지 못하는 공간을 메워주면 된다는 것이죠.
원칙이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는 관심으로 살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직책 관리 한번 볼까요? 직책은 팀장,
파트장, 그룹장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죠. 경영진과

평사원의 공간을 메워야 되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이분들이
살펴야 될 것은 정말 천지입니다. 직책 있다는 것은 그러한

직장에는 항상 실무와 경영의 관점에서 업무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이제 상사에게 보고하는 수준으로 업무가

종료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경력관리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 보고라는 것은 실무와 경영진의 관점을

통찰해야 되고요. 그래야 그 조직이 무난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직장인인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명심해주십시오. 직무, 직급, 직책에 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과는 이 3가지를 효과적으로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직장, 고객, 사회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주셔야 된다는 문제. 그게 바로 일의 방향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직책과 직급과 업무의 난이도와
타 직급이 신경 쓰지 못하는 공간을 이제 메우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TV를 보면 해괴망측한 보도를 접할 때가 있는데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해당 기관의 일이 아니라고 서로 미루는
그런 보도 자료를 많이 접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일은

회사 즉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기관의 관점에서만 봤기
때문이죠. 고객과 국민을 살피지 못한 형태죠. 즉 사회적인

관점을 무시한 직무 수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네 탓, 내 탓 하는 꼴불견들. 그 조직은 달나라

조직입니까? 별나라 조직입니까? 직무라는 것을 기관,
즉 어떤 조직 자체가 수행할 때도 있는 것이죠. 바로 공직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곳을 구성하는 직무가
바로 해당 기관이 되는 것이죠. 해당 기관 하나하나가 바로

민간 기업의 직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공직자의
직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국민이 부여한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민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대리가 사장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직자는 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
수행 자체가 법의 집행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별 활동이 되는 것이죠. 해당 기관과 타 기관 사이에서
오는 공간 모두를 품고 안아야 된다는 것이죠. 법에서

정해놓지 않았다면 이를 해결하려고 나서거나 제안을 하는
것이 옳은 직업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가만히

놓아두면 그 공간에서 생기는 사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과 공직자

선생님들은 틈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틈은 국민의 시선에서 봐야 명쾌하고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 틈에서 씨름하고 힘든
국민의 눈에는 아주 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틈에서

항상 지혜롭게 관찰한 공직자 그러한 선생님들 정말 훌륭한
공직자.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하는 일의 성과가
잘 나오지 않나요?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성과의 빛이 좀 시들어 보입니까? 그렇다면 직무, 직급,
직책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행하기 전에 한 번 작성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그 일의 직무 수행 범위와 직급상의

난이도와 상하 직급이 보지 못한 그 범위, 그 직책상의
역할을 정확하게 한번 적어보시기를 아주 정중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일의 방향성이죠.
즉 직장, 고객, 사회적인 관점을 고려해서 일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바로 직장의 일을 할 때 챙겨야 될 3직,
성과를 바라봐야 되는 정확한 시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장인은 평소에 일을 하실 때

항상 3직의 상황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직무, 직급,
직책이었어요. 따라서 일을 하실 때 이 3직을 고려하시면

경력관리에 대한 상황 대부분의 문제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가
있어요. 직장인이 나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당장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분석하는 것부터
생각해보시고 메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할 때 저는 업무만 충실하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직무와 직급과 직책까지 잘 신경 쓰고 관리해야
제대로 된 경력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정말 잘 새겨듣게 되네요.
오늘 그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인이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다들 그렇게
살아. 그러니 그냥 직장이나 잘리지 않도록 잘 다녀라.

이런 의미겠습니다마는 개인의 경력관리에서는
이런 태도는 조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직무, 직급, 직책만 잘 파악을 하시더라도
경력관리를 통해서 나의 미래가 탄탄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많은 직장인 선생님들이 현명한 선택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직장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평생 직업

시대인 만큼 경력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